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

손동식 | 서울신학대학 신학과(B,A)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M)를 졸업한 후 공군군목과 총회교육국 장년부 교재 간사로 사역하다 현재 영국의 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찰스 스펀전,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의 설교연구로 박사과정 중에 있다.

매년 여름 영국 중부의 한 작은 마을은 영국 전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로 이곳은 불과 사천 여 명의 인구가 사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차로 다섯 시간 걸리는 케직(Keswick)이다. 케직은 한국의 일종의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레이크 디스트릭(Lake District)에 자리한 마을 중 하나로, 아름다운 호수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영국의 많은 국립공원 중에서 유명한 곳이다.

케직 사경회의 시작과 목표

케직 사경회는 원래 19세기 후반 개혁주의 전통에서 나온 또 다른 성결운동으로, 1875년 성공회 목사였던 하트포 베타스비(Hartford-Battersby)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 하나”(All One in Christ Jesus)라는 모토로, 성경연구를 통한 성결과 봉사를 위한 초교파적 연례 천막집회로 시작되었다. 비록 12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여전히 케직 사경회 모임이 지속될 정도로 그것은 복음주의 운동의 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1985년 2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성경적 복음운동과 성경적 성결생활 운동을 목표로 제1회 서울 케직 사경회를 개최한 바 있다. 케직 사경회는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특정한 신학적 입장보다는 좀더 보편적이고 중도적인 신학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교회의 연합과 일치성을 통한 선교를 강조한다.

오늘날 케직 사경회 조직위원회는 그것의 목적에 관하여, 개인의 영적 생활을 심화하고 성경의 면밀한 해설과 적용을 통한 교회의 헌신을 독려하는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한 다음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 of Christ)으로, 각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겸손히 굴복하는 것이요, 둘째는 삶의 변화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 관한 의존을 고취하는 것이요, 셋째는 복음전도와 선교로, 복음전도와 선교에 대한 강한 헌신을 독려하는 것이요, 넷째는 제자도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위해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독려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연합과 일치로, 복음전도를 위한 일치의 실제적인 한 모범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 케직 사경회

올해 케직 사경회는 “자유합니까? - 놀라운 은혜의 삶”(Unshackled? Living in Outrageous Grace)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활천사의 후원으로 케직 사경회에 참여한 필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십여 명의 강사진인데, 그들 모두가 복음주의 신앙에 충실하고 동시에 성경에 정통한 학자이며 목회자라는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침 성경강해의 경우, 첫 주 출애굽기 강해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구약교수이자 전 학장인 알렉 모티어(Alec

Motyer), 둘째 주 갈라디아서 강해는 무어랜드 칼리지의 현재 학장인 스티브 브라디(Steve Brady), 셋째 주 로마서 강해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강해를 저술한 이안 코피(Ian Coffey) 목사가 각각의 성경을 일주일 동안 강해하였다. 그리고 매일 저녁 진행되는 저녁집회 역시 그가 신학교 교수이든 목회자이든 건전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성경강해로 인정받는 강사로 구성되었다.

케직 사경회의 또 다른 특징은 주제의 세분화와 전문성이다. 오후의 성경연구와 저녁집회는 좀더 세분화된 주제로 각기 다른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동일한 책에 대한 강해를 진행한다면 할지라도 깊이 있는 강해를 위하여, 한 사람이 강의와 설교를 독점하기보다는 다양한 강사들이 각기 다른 본문과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강해에 임하였다.

케직 사경회의 프로그램

케직 사경회의 프로그램 대부분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성경강해와 연구에 철저하게 집중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침 성경강해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3주간 각각 다른 강사들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특정한 책을 중심으로 강해한다. 예를 들어 첫째 주의 주제는 “출애굽기: 구원”, 둘째 주의 주제는 “갈라디아서: 자유”, 셋째 주의 주제는 “십계명: 책임과 절제”이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성경연구에서는 주로 히브리서 연구에 집중한다. 반면 저녁집회의 경우 2007년 케직 사경회가 지향하는 주제인 은혜와 관련하여, 첫째 주는 “변화시키는 은혜”, 둘째 주는 “자유와 시편들”, 셋째 주는 “마가의 복음”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욱 세분화된 주제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둘째 주간 저녁집회의 주제인 “자유와 시편들”에서는 매일 저녁 삶을 위한 은혜(시편 1편), 승리의 은혜(시편 2편), 창조의 은혜(시편 8편), 희생의 은혜(시편 22편), 세계를 위한 은혜(시편 72편), 예배의 은혜(시편 24편), 당신을 향한 은혜(시편 32편)라는 주제로 각각 다른 설교자들이 강해한다.



3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강해와 성경공부, 그리고 크고 작은 세미나를 감안한다면 100여 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해하고 연구하는 셈이다. 필자가 느끼는 케직 사경회는 한마디로 3주간 진행되는 초교파적인 말씀축제요, 진리의 뷔페이다. 케직 사경회는 이러한 성경연구뿐 아니라 성경연구의 외적 지향점인 선교와 봉사의 삶을 위하여, 사경회 기간 세계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모임도 함께 진행한다.

케직의 참여자들

케직 사경회는 각 개인으로부터 가족단위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 그러므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로 장년들을 위한 집회와 세미나가 진행되는 메인 텐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K4K(Keswick for Kids)를 위하여 교회연합의 정신 속에 예배당을 제공하는 19개의 지역교회, 그리고 주요 참여자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2개의 캠프장을 제공한다. 특히 메인 텐트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구성은 필자에게 인상적인 것이었다. 각각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웅만한 신학교 강의를 능가하는 전문적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참여한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로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는 평신도들이라는 점이다.

거인의 고별사

이번 케직 사경회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로 존 스토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스토트의 경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곳 영국에서 피부로 느끼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그의 비중은 훨씬 거대하다. 몇 해 전 뉴욕타임즈의 “만약 개신교회에서 교황을 뽑는다면 그는 존 스토트일 것이다.”라는 보도나 “오늘 영국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주의의 부흥은 많은 부분 그의 공헌”이라는 옥스퍼드의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 교수의 말처럼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향한 그의 공헌은 간과할 수 없다. 금번 케직이 지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는 이번 케직에서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공적 사역에서 은퇴하기 때문이다.

스토트는 7월 17일 화요일 저녁, 그의 은퇴기념 설교를 위해 그렇게 케직 강단에 올랐다. 올해 86세의 노사도는 그 연로함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강단에 올랐고,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주의 진리를 위한 그의 헌신에 대한 답례로 기립박수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케직으로 올라오기 전

날 저녁, 웨일스의 뉴캐슬 엠린 한 외진 곳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묘소를 방문한 터라, 한 시대 주님의 신실한 말씀의 종으로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고 퇴장하는 위대한 두 지도자의 모습을 눈앞에 바라보자니, 필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가슴 뭉클한 감동에 압도되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 케직 사경회 조직위원회는 그의 신실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국식으로’ 선물을 준비하였다. 다름 아닌 작은 초콜릿 박스였다. 스토트는 웃음으로 답례하였다.

그의 설교를 짧게 소개하는 것은 유익할 듯하다. 스토트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성육신적인 선교요, 둘째는 섬김이요, 셋째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성경을 일일이 열거하며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좀더 성령께 의존하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오래 전 스토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 “내 인생의 최대의 야망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라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하는 궁극적인 야망임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리고 케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그는 지난 60여 년의 그의 사역과 신앙을 지배한 핵심정신(Spirit)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케직 사경회와 한국교회

필자가 한국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케직 사경회를 참여하면서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된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학교와 교회는 그 건강함을 위하여 더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성장을 지향하는 조직의 특성상 교회는 자칫 그 고유한 진리의 궤도를 이탈하기 쉽고,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의 특성상 자칫 학교는

관념적인 것에 머물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목회의 양분을 극복하고 주께 받은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양자의 친밀하고 따뜻한 동역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건전한 신학의 기초 위에 진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교회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크기 혹은 교인의 숫자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곧 세계교회를 섬길 만한 진정한 영적 자산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류나 유행을 좇아 잠시 붐을 이루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설교나 저서가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읽히는 신앙 거인들의 고전처럼, 기독교 본연의 진리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세계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설교와 저서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마케팅이 혹은 뛰어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일까? 아니면 대형교회 혹은 특성화된 소형교회일까? 물론 교회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믿는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존속시키고 확장시켜 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능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행 5:39).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성경연구를 통하여 성경적인 복음전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냐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지나치게 관심함으로 진리의 본질을 쉽게 망각하는 슬픈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진리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교회로 몰아쳐 들어오는 세속의 시류를 능히 거스르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성결교회를 기대해 본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 40:8). ④